

여성노조원 8명 집단폭행

비노조원 50명 노조해체요구 횡포

90. 8. 26

군인공제회 1제화사업소

【대전=손규성 기자】 군화 등 군납품제조업체인 군인공제회 제1제화사업소(소장 성대열·대전시 대덕구 평촌동)가 노조원에 대한 비노조원들의 집단폭력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가 하면 비노조원들이 사업장 주위를 돌면서 날마다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있어 노동자들이 회사 쪽의 노조와해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쪽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20분께 이 사업소 공장 안 채봉반에 비노조원 50여명이 들어

와 노조를 해체하라며 갑자기 노조 여성부장 오영애(26·재봉반) 씨 등 8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발로 마구 짓밟는 등 집단폭행해 오씨가 온 몸에 타박상을 입고 그자리에서 졸도, 대전 소망병원 등에서 하룻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생산공장의 조장·반장·주임급으로 구성된 비노조원 50여명이 날마다 떼지어 공장 주위를 돌면서 “노조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한편 여성노조원들을 에워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현대중장비 쟁의신고

【울산=신동명 기자】 현대중장비(대표 김형벽) 노조는 25일 경남도 지방노동위와 울산시에 쟁의발생신고를 냈다.

이 회사 노사 양쪽은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6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1백36개 항의 단체협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나 노조원들이 반발하자 노조쪽이 다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쪽에 대해 협상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쪽은 회사쪽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2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했었다.

폐업철회 요구 농성

경성고무 전주공장 90. 8. 26

【전주=장세환 기자】 운동화를 만들어 전량 수출해온 (주)경성고무 전주공장(대표 송영옥·50·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직장폐쇄신고를 하자 노조쪽이 “일방적인 조치”라고 반발,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25일부터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위원장 최오순·30)에 따르면 회사쪽은 노조에 공식적인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를 강행, 임금지급과 폐업 뒤의 취업보장 등 사후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